

## 라디오방송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린이문학의 자리(2)\*

최 미 진\*\*

### 차 례

- |                              |                           |
|------------------------------|---------------------------|
| 1. 서론                        | 4. 4·19혁명과 어린이문학의 거듭되는 부진 |
| 2. 방송환경의 변화와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등락 | 5.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 불안한 자리    |
| 3. 경화되는 라디오방송과 어린이문학의 동요(動搖) |                           |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에 이르는 시기 라디오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이 재편된 방식을 통해 어린이문학의 기반을 살펴나가는 데 있었다. 이 시기 양대 방송국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사뭇 다른 행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KBS는 1956년부터 1957년 중반까지 방송환경 개선에 힘입어 방송체제를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은 방송시간을 확대하며 성장을 꾀했다. 참여 프로그램의 약진이 두드러졌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조교수

고,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안정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였다. 하지만 탄탄한 작가 진영에 비해 라디오매체에 걸맞은 작품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취자들의 선호도가 약화되었다. 1958년 들어 KBS는 교양 프로그램을 대폭하는 가운데 아침방송이 강화된 반면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존재 위기에 내몰렸다. 그것은 ‘도의’를 앞세운 국가주의 정책의 강화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었다. 각계의 비판 속에 1959년 봄 개편 후 이전의 포맷으로 전환 움직임을 보였다. 4·19혁명기를 거치고서야 KBS는 본격적인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외형을 갖추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성장을 담보하기 힘들었다.

이에 반해 CBS는 1956년 들어 방송시간의 연장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시간대 조정과 드나듦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참여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의 신설 및 적절한 안배는 주목할 만했다. 하지만 이 시기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약세로 돌아섰다. CBS 특유의 대화극과 각색물이 명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특정 작가에게 집중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1958년에 접어들면서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만큼 CBS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렸다. 어린이시간의 단축 속에 경쟁력 있는 세부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폐지되고, 무난한 프로그램들조차 ‘~교실’로 제명을 달리했다. 어린이문학 프로그램들 또한 크게 패퇴하여 대부분 각색물 일색이었다. 그러한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고, 4·19혁명에야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가을 개편 당시 CBS는 4·19 정신을 계승한 <어린이뉴스>를 신설하고 《어린이시간》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 프로그램은 안착했지만,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폐색이 짙었다. 1960년대 경쟁적인 라디오방송 시대를 앞둔 시점이었지만,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전망을 낙관하기는 힘들다 하겠다.

주제어 : 라디오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 KBS, CBS, 참여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동화, 동극, 연속어린이극, 창작물, 각색물, 국가주의.

## 1. 서론

이 글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에 이르는 시기 라디오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이 재편된 방식을 통해 어린이문학의 기반을 살펴나가는 데 목적을 둔다. 이때 어린이문학은 라디오서사의 일종인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을 일컫는다. 주지하다시피 라디오서사는 일련의 이야기가 라디오매체의 배열과 수사적 방법에 따라 전달되는 서사다. 오늘날 서사가 강력한 의사소통의 수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라디오서사는 보다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르를 넘나들며 여러 문화 산물과 담론들을 두루 포함하며, 어린이를 주된 청취대상으로 삼을 때에도 마찬가지다.<sup>1)</sup> 그러한 면면은 《어린이시간》<sup>2)</sup>으로 대표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재편과 운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청취대상을 어린이로 특화한 사회·교양 분야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여느 연예·오락 프로그램들과 구별되는 편성전략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일례로 전시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이 발 빠르게 고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것도 계도와 선전의 기능에 보다 주목한 결과였다. 그만큼 어린이 프로그램은 제반 방송환경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조응해야 했던 셈인데, 그것은 1950년대 중반을 넘어

1) 최미진, 『라디오방송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린이문학의 자리(1)』, 『대중서사연구』 제20권 제1호, 2014, 145쪽.

2) 이 글에서 독립된 어린이 프로그램은 ‘《 》’을, 그 세부 프로그램은 ‘< >’을 각각 사용하기로 한다.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 작품에서도 장편은 ‘『 』’을, 단편은 ‘『 』’으로 구별 짓는다.

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방송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국영방송제도의 한국적 지배구조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국영방송 KBS는 국가권력의 하부구조에 편입되어 있었고, 민영방송 CBS 또한 그 관리·통제 아래에 있었다. 1956년 벽두에 CBS가 갑작스럽게 주파수 조정을 했던 것은 비근한 일례에 불과하다.<sup>3)</sup> 이 즈음 방송기구의 개혁 움직임은 정치적 논란거리였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방송국은 한국전쟁 전후로 공보처장 직속 하에 있었지만, 1955년 공포된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에 따라 문교부로 이관되었다가 이듬해 그 수정안 통과로 대통령 직속의 공보실 산하에 존치된다.<sup>4)</sup> 대공방송의 공보적 가치를 앞세워 치외법권적 대통령 직속기구에 재편됐던 것이다. 그 결과 방송관리업무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그만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프로그램 편성권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1957년 6월 1일 방송연구실을 신설하여

3) CBS는 1956년 1월 1일부터 공식 주파수가 710Khz에서 840Khz로 변경되었다. 주파수 변경이 청취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것은 자명하였지만, KBS에서 710Khz로 변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터였다. 어쩔 수 없이 CBS는 1955년 12월 31일 철야작업을 통해 다음날 주파수 변경을 하였던 것이다. 『하룻밤 사이의 주파수 변경』, 『한국방송사』,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방송공사, 1977, 751-752쪽.

4) 위의 책, 234-235쪽. 방송관리업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1954년 12월 25일 자유당 측에 의해 발의되었다. 발의안 제10조에 따르면 “법령의 공포 정보선전 인쇄 신문영화제작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에 둔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논란 속에 1955년 2월 17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인쇄 신문영화제작과 방송관리” 업무를 문교부로 이관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법안에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 결과 공포를 미루고 재개정안 의결을 서두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공보실 산하에 있는 기형적 상황을 낳았다. 방송관리비 예산이 공보실 소관으로 불법 편성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문교부에서는 방송사업직제령 부제로 방송관리사업을 전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1956년 2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은 방송관리에 대한 사무를 공보실로 이관하는 대신 공보실을 수석국무위원의 지휘감독 하에 두기로 한다. 하지만 사실상 방송관리업무는 발의안대로 대통령 소속하의 공보실이 전담하는 것과 진배없었다.

방송관리와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1958년 1월 25일 ‘방송의 일반 기준에 대한 내규’가 제정되어 법적 공백을 대신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어린이 프로그램, 특히 KBS의 《어린이시간》은 파행적 운영이 적잖았다. 일례로 국내외 행사의 중계방송에 내리밀려 결방이 빈번했고, 청취자들의 항의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방송콘텐츠에서 우위에 있었던 CBS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견제한 흔적은 역력하다. 방송시간의 잦은 조정을 거쳐 축소를 단행하고 인기 콘텐츠를 폐쇄한 것은 그러한 맥락을 덜어내면 설명되기 힘들다. 어린이 프로그램조차 정부의 강력한 관리·통제아래 있던 국영방송제도가 영향을 끼쳤다 하겠다.

다른 하나는 전후복구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방송환경이 점차 개선된 점이다. 1955년 대송출 송신소를 연이어 준공한 KBS에 뒤이어 CBS도 출력증강을 현실화하였고, 그것은 방송시간의 연장의 성과를 내놓았다. 이에 방송국 자체의 프로그램 개발이 잇따랐고, 청취자의 확대를 위한 기반 사업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sup>5)</sup> 그러한 가운데 라디오서사 전반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대표적인 예가 1956년 12월 2일부터 KBS에서 방송된 주간연속극 『청실홍실』이다. 그것은 청취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라디오 연속극의 시대를 열었고 뒤이어 영화화의 붐까지 조성했다.<sup>6)</sup> 두루 알다시피 라디오연속극은 어린이연속극 『똥똥이의 모험』이 첫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 시기 어린이연속극은 청취자들에게 각인되지 못했다. 오히려 양대 방송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은 참여

5) 이 시기 KBS의 방송환경 개선 향방은 많은 부분 1955년 초반 “정부 모기관”에서 기획된 방송기구 개혁안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대공태세 강화를 내걸고 “방송국의 시설 및 푸로 내용의 확충과 수신기(라디오)의 보급문제”를 숙의한다. 그 해결책으로 (1)방송비용의 특별회계 환원, (2)제1,2방송의 분립, (3)수신기 및 부속품의 직접 도입과 방매가 거론된다. 특히 실제적 추진기구로 국무장관 소속하의 방송청 설치를 제안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방송기구개혁론 접수, 시설 빈약을 통감 전과통한 반공태세 긴급』, 『경향신문』, 1955.1.17, 2면.

6) 최미진, 『1950년대 후반 라디오연속극의 영화화 경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119-141쪽.

프로그램들이었다. KBS의 <무엇일까요>와 <누가 누가 잘하나> 그리고 CBS의 <노래잔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방송환경의 개선 이전에 기획되고 운영 중이었던 것이다.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이 시기 방송환경의 개선이 적어도 어린이 프로그램과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에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이 시기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다양한 면면은 당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주목받지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 드러나듯<sup>7)</sup> 현재로서는 명명조차 낯설 만큼 어린이문학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 최근 펴낸 『한국 라디오드라마사』<sup>8)</sup>에서도 『뽕뽕이의 모험』을 제외하면 어린이극의 존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어린이문학 연구에서 매체별 연구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였고, 더욱이 실증적 연구는 답보상태에 있다.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 연구 또한 마찬가지다.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1차 문헌사료가 거의 망실되었고 2차 문헌자료조차 열악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격동의 시대에도 어린이 프로그램이 고정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문학의 자산과 미미한 입지가 모순적으로 비춰질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면면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성은 방송사의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련의 방송활동 자체를 포괄하지만,<sup>9)</sup> 좁게는 각 프로그램의 내용, 형식, 시간을 결정하는

7) 기존 연구사는 최미진(2014), 앞의 글, 145-146쪽을 참조할 것.

8) 『한국 라디오 드라마사』는 통사와 연표로 분권되어 있으며, 특히 통사는 ‘성우들의 역사’라는 부제에 걸맞게 성우들을 주축으로 라디오드라마를 개관하고 경험담을 싣고 있다. 윤태진·김정환·조지훈, 『한국 라디오 드라마사』, 한국성우협회·한국방송실연자협회, 2015.

9)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은 방송활동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방송사의 존재양식과 내부의 형편(재정, 인력, 시설 등), 법적 규제 상황, 국내외적 정치사회적 상황, 타방송사와의 경쟁관계, 청취자들의 삶의 양태와 수신기 보급률 등을 종합·분석하여 편성에 입하게 된다. 『방송편성론』, 『한

행위를 가리킨다.<sup>10)</sup>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은 사전 계획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 셈인데, 여기서는 좁은 의미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방식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 밝히는 데 일차적 의의를 둔다. 이 시기 어린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재한 까닭에 기존의 방송사,<sup>11)</sup> 방송 담당층의 회고록,<sup>12)</sup> 신문자료<sup>13)</sup> 등 2차 문헌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역추적하고자 한다. 당대 상황의 변화에 걸맞게 라디오 프로그램은 개편을 거듭했고, 어린이 프로그램의 재편 움직임 또한 부산하다. 이 글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자리를 가늠하는 첫 단계로서 유의미하다. 때문에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자리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추이 그리고 주요 작가층 등을 밝히는 데 한정하기로 하겠다.

## 2. 방송환경의 변화와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등락

1956년과 1957년에 이르는 시기 라디오방송은 다가올 라디오시대의 기반 마련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국영방송제도 아래

국방송론』, 강현두·김만룡 공편, 나남, 1989, 64쪽 참조.

10) 한진만, 『방송 편성 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viii쪽.

11) 방송사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한국방송7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방송사70년』, 한국방송협회·한국방송공사, 1997.; 국군방송40년사 편찬위원회 편, 『국군방송 40년사』, 국군홍보관리소, 1995.; 사사편찬위원회 편, 『CBS50년사』, CBS, 2004.

12) 방송담당층의 회고록은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저서는 다음과 같다. 노정팔, 『한국방송과 50년』, 나남, 1995.; 한운사, 『구름의 역사』, 민음사, 1996.; 이내수, 『이야기 방송사』, 씨앗을뿌리는사람, 2001.; 한국TV방송50년위원회 편, 『한국의 방송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13) 당대 신문은 상황에 따라 라디오방송 안내를 실고 있고, 주평을 실은 경우도 들쭉날쭉하다. 정확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1956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시기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를 교차 분석하여 연구에 참조하였다.

방송관리업무는 정치적 논란 속에 대통령 직속의 공보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그것은 정부의 강력한 관리·통제 아래 대공태세 강화를 앞세운 방송기구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더욱이 전후 복구사업의 성과들이 가시화되면서 제반 방송환경이 열악한 라디오방송 여건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방송 제반시설이 확충되면서 방송시간의 연장을 이루어졌다. KBS는 1955년 8월 대송출 송신소인 연희연주소 개소하고 이듬해 3월 수원송신소가 준공되면서 비약적인 출력 증강이 가능해졌다. 이에 힘입어 1956년 10월 1일부터 이중방송이 실시되었고, 1956년 12월 1일부터 주말 중일방송이 시작되었다. 1957년 6월 1일부터는 전면적인 중일방송이 실시되었다.<sup>14)</sup> CBS 또한 숙원 과제였던 방송시간 연장을 이루어낸 해였다. 프로그램의 제작여건이 호전되자<sup>15)</sup> 1956년 2월 1일부터 아침방송을 시작하였고, 9월부터는 2시간 연장함과 동시에 저녁방송도 10시 45분까지 연장하였다. 출력증강공사가 완료된 1957년 8월 15일부터 5kW에서 10kW로 남북지향성 방송이 가능해지고 10월부터는 방송시간을 30분 연장하였다.<sup>16)</sup>

그리고, 여러 방송국의 잇따른 개국은 양대 방송국에 자극제 역할을 했다. 1956년 5월 12일 최초의 민간상업 텔레비전 방송인 대한방송(HLKZ-TV)이 개국하였고,<sup>17)</sup> 뒤이어 12월 23일 극동방송이 첫 전파를

14)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77, 219-220쪽.

15) CBS는 1955년에 들어 제작여건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1월 18일 '종교 및 음악 프로그램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일에는 KBS보다 앞서 '방송드라마연구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어린이합창단인 'CBS어린이노래회'가 발족되고 5월 30일에 '어린이방송극회' 회원을 모집했다.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752쪽. 더욱이 CBS는 같은 해 10월 '방송극 예술상'을 제정하여 12월 15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그것은 라디오드라마의 제작 독려와 수준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16) 사사편찬위원회 편, 『CBS50년사』, CBS, 2004, 62-63쪽.

17) 대한방송은 1956년 5월 12일 황태영이 미국의 RCA와 제휴하여 텔레비전방송사(KORCAD)를 설립하였다. 호출부호는 HLKZ, 출력 100W, 영상주파수 186~

보냈다.<sup>18)</sup> 한국전쟁 중 창설된 AFKN 또한 라디오방송에 이어 1957년 10월 4일부터 TV방송을 실시하였다. 라디오뿐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속속 개국함으로써 방송환경은 이전보다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그것은 양대 방송국의 방송 담당층으로 하여금 방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보실 산하에 안주했던 KBS는 방송국 간의 경쟁구도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신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라디오 수신기 보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당시 수입에 의존했던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가격이 너무 비쌌고, 때문에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군용기재 부품을 이용한 광석 라디오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조차 도시 편중현상은 여전했고, 전기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라디오방송의 접근성이 낮았다. 이에 1957년부터 공보실을 주축으로 농어촌지역에 엠프촌 조성 사업과 라디오수신기 무상 배부운동을 벌였다. 수혜지역이 일부에 그쳤지만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수신기 보급과 확장에 촉진제가 되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9)</sup>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들에 주목하면서 1956년부터 1957년에 이르는 시기 두 방송국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의 재편방식과 어린이문학의 자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시기 KBS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서머타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시간》의 방송시간대가 오후 6

192MHz, 채널 9번으로 방송되었으며, 시청 가능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6~24km였다. 그러나 적자운영을 감당하지 못해 1957년 5월 6일 『한국일보』의 장기영에게 양도되어 대한방송주식회사(DBC)로 바뀌었다. 그 후 방송시간 확대와 프로그램 구성의 다각화로 안정을 되찾았으나 1959년 2월 2일 화재로 방송이 중단되었다. 주한미군방송국의 협조로 30분씩 임시방송을 하였지만 결국 1961년 10월 15일 방송을 끝으로 KBS-TV에 합병되었다.

18) 극동방송, 즉 재단법인 한국복음주의방송국은 미국 팀선 교회가 기독교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세운 극동방송의 분국이다. 설립당시 호출부호는 HLKX, 주파수는 1230kc, 출력은 20kW이었다.

19)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48-249쪽.

시로 정착된 것은 일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중방송 실시 이후 방송시간의 연장이 잇따르면서 어린이 프로그램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했다.

우선, 어린이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KBS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시간》에 불과했지만, 방송시간의 연장이 새로운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을 촉발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라디오유치원》이다. 《라디오유치원》은 1956년 8월 1일 신설되어 매일 오전 9시부터 15분간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시간》의 후신으로 장준영 담당, 임정은 지도로 운영되었다.<sup>20)</sup> 이 시기의 신문자료 검토결과, 요일별 세부 프로그램은 일요일 <동화극>, 월요일 <노래동산>, 화요일 <노래지도>, 수요일과 토요일은 <동화>, 목요일 <아기놀이>, 금요일 <노래공부>로 일정한 흐름을 띠고 있었다. 새로운 유아동요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했던 만큼 동요에 기반 한 세부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유아시간》에 비해 다른 문학 장르에도 힘을 쏟고 있음은 역력하다. 참여 작가만 하더라도 동화에 홍은순, 박경중, 최선강, 유희성 등, 동화극에 이원수, 김영일, 이소우, 이수영 등이 힘썼다. 전속작가 몇몇으로 운영되던 전쟁 직후보다 일신한 면면이다. 이러한 흐름이 1957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데, 그것은 《라디오유치원》을 통해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창작과 향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어린이 프로그램 《착하고 아름답게》이 운영된 것도 이즈음이다. 『한국방송사』에 따르면, 《착하고 아름답게》를 “1956년 가을 매일 아침시간에 신설하여 어린이들의 즐거운 노래 소리를 상쾌한 아침에 들도록 편성”<sup>21)</sup>하였다 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1955년 12월 4일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며,<sup>22)</sup> 매주 일요일

20) 위의 책, 291쪽.

21) 위의 책, 291쪽.

22) 《착하고 아름답게》 신설 당시의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창과 합창>(중달새 동요회, 서울방송 앙상블, 지휘 황금신), 2.<실로폰 독

만 7시 45분부터 15분간 방송되었다. KBS가 운영하던 아침 음악프로그램을 어린이 대상으로 특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어린이 프로그램의 잇따른 신설은 청취자층의 확대를 꾀하는 한편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창작과 향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간주된다.

다음으로, 《어린이시간》의 세부 프로그램들은 방송제도 전환을 전후로 변화를 도모했다. 첫째, 인기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요일과 시간대 조정이 대폭 이루어졌다. 인기 프로그램은 고정적으로 편성된 경우가 많아 청취관습의 형성에 조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조정을 감했다는 점은 프로그램의 입지가 확고히 다져졌음을 반증한다. 대표적인 예는 이중방송이 실시된 10월 개편에서 <연속어린이극>이 화목에서 월목체제로 바뀌고, <누가 누가 잘하나>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옮겨 간 것이다. 특히 <누가 누가 잘하나>는 이듬해 종일방송제도로 전환한 6월 개편에서 《어린이시간》과 별개의 독립 프로그램으로 승격되어 일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45분간 방송되었다. 그것은 당시 <누가 누가 잘하나>에 대한 청취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인기를 방증하는 셈인데, 지금까지도 TV방송 중인 유일한 어린이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둘째, 세부 프로그램의 신설은 소폭 이루어졌다. 이중방송 전환 이전 신설된 세부 프로그램은 <음악교실>이 유일하며,<sup>23)</sup> 11월 개편 당시 일부 신설이 이루어진다. 목요일의 <노래교실>과 금요일의 <라디오도서실>이 대표적이다. <노래교실>은 새로운 동요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1955년 초 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설된 것이다. 종전 직후에는 전시동요 일색이던 분위기 쇄신에 힘썼다면, 신설된 <노래교실>은 1956년 벽두 KBS가 기획한 <금주의 라디오동요>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라디오도서실>은 사회문화적 상식 두세 가지를 문답

주>(길형원) 『라디오』, 『동아일보』, 1955.12.4., 4면.

23) 자료검토 결과 <음악교실>은 1956년 3월 12일 월요일부터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노래모음을 독창이나 합창 등으로 들려주거나 클래식 소품을 악기 연주를 통해 방송하였다.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질문은 한정자가, 답변은 이덕근이 각각 맡았다.<sup>24)</sup> 그것은 기존의 <무엇일까요>와 CBS의 <라디오교실>와 대상은 유사하지만,<sup>25)</sup> 대화극이 내장한 입체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이상의 신설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방송 포맷을 되살리거나 재매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전혀 다른 새로움보다는 친숙한 새로움을 포맷으로 선택한 셈이다. 어린이들의 교육과 교양 함양에 목적을 두었던 프로그램들이었던 까닭에 그것은 신설 당시 유리하게 작용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상과 형식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정서와 교양 함양을 앞세운 국가주의 기획과 사회적 요구가 맞물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문학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1955년 이래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여러 장르의 어린이문학을 적잖게 편성했고, 방송제도의 전환에도 변화는 미미했다. 앞서 살폈듯이 10월 개편 이후 <연속어린이극>은 요일 변동이 있었을 뿐 지속적으로 방송되었다.<sup>26)</sup> 당시 토요일에 방송되던 <동요극><sup>27)</sup>도 금요일로 자리를 옮겼다

24) 1957년 2월 8일부터 질문자는 송경자로 대체되었지만, 답변자는 교체 없이 이덕근이 도맡다시피 했다.

25) 이를테면 1956년 11월 2일 <라디오 도서실>의 첫 방송은 “폴란드와 헝가리 인민은 왜 의병을 일으켰나? 세계올림픽대회 유래, 방송극은 어떻게 방송하나?”를 대상으로 삼았다. 『라디오』, 『경향신문』, 1956.11.2., 4면.

26) 1956년에서 1957년 중반까지 <연속어린이극>을 통해 방송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이철민의 『수들의 모험』(1955.11.8.-1956.3.20. 총37회), 한운사의 『언덕 위에 피는 꽃』(1956.4.3.-7.24. 총30회), 유희의 『푸른 잔디』(1956.8.2.-10.29. 총26회), 조훈과의 『눈보라 속에 피는 꽃』(1956.11.1.-1957.2.4. 총26회), 강소천의 『엄마별 아빠별』(1957.2.7.-5.20. 총29회), 황광은의 『춤추는 무지개』(1957.5.23.-8.20. 총20회)

27) <동요극>은 <노래극>이나 <동화극> 등의 명명을 섞어 사용했는데, 그것은 장르의 결합방식을 손쉽게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1956년 11월 개편 이후 명명방식을 <어린이극>으로 전격 대체하면서 본연의 극형식을 중심에 두었다.

가 12월 개편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편성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풍성한 결과를 내놓았다. 작가 진용 또한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동화와 소년소설은 김영일, 장수철, 황광은, 이원수, 홍은순, 박경중, 이종택, 황금례, 방기환, 이영희, 한정동, 김요섭, 최선광, 유희서가, 어린이극은 유호, 강소천, 이원수, 박홍민, 장수철, 최요안, 이소우, 원설영, 이철민, 박일암, 한운사, 조훈파, 배옥천, 박은중, 박일혜, 김상덕, 김자림, 이소정, 이진희, 김영일, 윤민 등이 각각 활동하였다. 기존 작가들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했고, 특히 신진작가들이 방송활동을 시작한 경우를 꽤 발견할 수 있다. 어린이문학 또한 신진작가들이 매체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고 보면, 그들이 라디오방송을 통해 새로운 입지를 다져갔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시기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성과를 매체 본연의 특성을 고구한 결과로 단정 짓기에는 역부족이다. 1956년 11월 개편 이후 프로그램명 <동화>를 <동화낭독> 혹은 <소년소설낭독>으로 바꾼 것은 비근한 예다. 프로그램명에 '낭독'을 더한 것은 당시 방송된 동화와 소년소설의 창작 여부와 형식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라디오매체 특유의 배열과 수사적 특성을 내장한 어린이문학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활자매체를 통해 발표된 작품들을 라디오매체로 옮겨놓은, '듣는 글' 형식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낭독'을 내세웠다는 점은 라디오방송에 걸맞은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을 수 있다. 이즈음 <동요극>이 <어린이극>에 자리를 내놓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동요극>은 오랫동안 라디오매체 특유의 어린이극 형식을 탐색한 자산이다. 그럼에도 <어린이극>으로 대체한 점은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일보 전진으로 쉽게 간주되기 힘들다. 게다가 <노래교실>의 신설에서 보았듯 동요 분야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경직될 위험을 내장하고 있었고, 어린이 청취자들조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가 높아져가는 상황이었다. 그만큼 라디오매체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문학이 약화될 위험을 내장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이 시기 CBS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KBS의 비해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대표적 어린이 프로그램인 《어린이시간》의 방송시간대가 자주 조정되었다. 1956년 두 차례 방송시간의 연장에도 《어린이시간》은 25분의 러닝타임을 유지하였지만, 방송시간대는 일정하지 못했다. 개국 이후 CBS의 《어린이시간》은 KBS와 1시간여 간극을 두고 방송해왔다. 그러나 1956년 6월부터 1시간 30분의 간극을 두었다가 다시 10월부터는 30분으로 간극을 좁힌다. 이러한 변동은 같은 해 5월 12일 대한방송(HLKZ-TV)의 개국 이후 방송시간 조정의 한파를 기독교방송국이 떠안은 결과로 보인다.<sup>28)</sup> 조정의 제과정은 많은 부분 공보실의 조치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잦은 시간대 조정이 청취자층의 이탈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까닭에 기독교방송국 자체의 판단으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실권이 강화된 공보실이 방송국별 시간대 조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다음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의 신설과 재편이 두드러진다. 특징적인 면면을 살펴보면 첫째, 아침방송 실시 이후 어린이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활성화된다. 1956년 2월 방송시간 연장으로 아침방송이 실시되었고, 어린이 프로그램 《동요합창》을 신설하여 화요일 오전 7시 15분부터 15분간 방송했다. 그 해 9월 아침방송 시간이 다시 연장되자 CBS는 초등학교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6시 45분부터 15분간 방송되었는데, 월수금은

28) 자료조사에 따르면 대한방송은 6월부터 일요일마다 오후 8시부터 《어린이시간》을 운영하였으며, 7월부터는 화요일과 토요일 7시 10분부터 20분간 방송하였다. 여기에 더해 7월 29일부터 매일 6시 30분부터 <어린이 여름방학공부>를 특별 편성하였다. 그리고 8월부터는 《어린이시간》이 7시로 앞당겨졌다. 그러한 가운데 기독교방송국의 《어린이시간》은 6월부터 서울중앙방송국과 대한방송의 《어린이시간》이 다 끝난 후에야 방송되었고, 10월부터는 서울중앙방송국과 대한방송 사이에 운영되었다.

《초등영어회화》를, 화목토는 《초등영문법》을 각각 배정했다. 특히 우수한 외국인 강사진의 확보가 손쉬웠던 이점을 활용하여 영어회화를 특화하는 편성전략이 돋보인다.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또한 청취자들의 생활리듬을 반영해 시간대 조정에 적극 나선다. 1957년 들어 오전 7시대로 옮겼다가 5월부터 《어린이시간》보다 1시간 앞에 배치시킨다. 그리고 12월에는 15분 앞으로 재배치하여 《어린이시간》과 연계하여 학습과 놀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편성전략 덕분에 영어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그것은 CBS에 대한 인지도뿐 아니라 일련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둘째, 《어린이시간》에서 세부프로그램의 신설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다. 방송연장에 앞선 1956년 1월 3일 화요일 <알아맞히기>를 신설한 데 이어 2월 1일 수요일에는 <꼬마음악가>를 신설했다. <알아맞히기>는 KBS <무엇일까요>의 성공적 사례를 참조하여 CBS가 새롭게 마련한 퀴즈 프로그램이다. 신설 당시부터 《어린이시간》의 러닝타임을 모두 소화한 첫 프로그램이다. 쏟은 공력에 걸맞게 <알아맞히기>는 대표적 퀴즈 프로그램으로 승승장구한다. 그리고 <꼬마음악가>는 음악적 상식과 원리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추어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풀어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황영숙이 담당했다. 대상과 형식을 달리했지만 <라디오교실>과 함께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신설 양상은 1957년에도 이어지는데, <꼬마예술가>와 <나오기까지>이 대표적이다. 1957년 1월 18일 화요일 첫 방송된 <꼬마예술가>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어린이들이 직접 독창이나 연주를 뽑내는 참여프로그램이었다. <꼬마음악가>와 이름은 유사하지만 포맷은 <작은 음악회>와 닮아 있다.<sup>29)</sup> 그럼에도 당시 서울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뿐

29) <꼬마예술가>가 신설되면서 <꼬마음악가>는 폐지되며, 금요일 부동의 자리매김을 했던 <작은 음악회>도 서서히 비중이 줄어들다가 같은 해 12월에 폐지된다.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경쟁을 부추겼던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다. 대표적인 예로 백건우는 <꼬마예술가>를 통해 피아노 독주를 선보였는가 하면,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작은 음악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종종 포착된다. 그리고 <나오기까지>는 10월 2일 첫 전파를 탔다. “군용차량이 나오기까지”와 같이 근대 과학문물의 출현을 대화극 형식으로 풀어낸 프로그램으로 이전의 <라디오교실>과 유사한 포맷을 취했다. 때문에 방송 중이던 <라디오문답>이 청취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포맷을 전환했지만 곧이어 폐지되고 만다.<sup>30)</sup> <나오기까지>의 성공적 안착은 오랫동안 청취자들에게 익숙한 포맷이었던 데다 다양한 제재를 취재하여 대화극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냈던 것이 주효해 보인다. 이 시기 신설된 세부 프로그램들은 선교와 교양에 치중했던 초기 양상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취향과 눈높이를 맞추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KBS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만큼 급성장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돌연 약세로 돌아섰다. 1956년 두 차례 방송연장은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세부 프로그램의 드나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정규 편성에서 변칙적으로 수용되는 데 그쳤다. 목요일 방송되던 <연속소설>의 경우 <동화>로 대체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인의 어렸을 적>과 <이달의 훈화>와 함께 순번대로 배치되는 양상까지 띠었다. 굳건하게 자리매김했던 금요일의 <연속명작극>조차 6월부터 <연속동화>로 대체되면서 강세를 접했던 CBS 어린이극의 존재도 미미해졌다.

1957년에 접어들면서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외형상 일신한 면면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때 <연속동화>와 <연속어린이극>이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을 주도했다. 하지만 <연속동화>는 순탄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30) <나오기까지>와 <라디오문답>의 공존은 얼마가지 못했고, 1957년 12월 <라디오문답>이 폐지되는 대신 <나오기까지>를 전면화한다.

비해 특정 작가에 집중되는 기현상을 드러냈다. 목사이자 어린이문학가인 황광은이 <연속동화>시간을 통해 여러 작품들을 줄지어 방송하였던 것이다.<sup>31)</sup> 초반에는 창작어린이소설 『노래하는 섬』, 『꿈꾸는 소년』, 『털털선생』을 내놓았지만, 후반에는 『그림동화집』과 같은 세계명작동화와 『기드온의 검』 등 선교동화를 방송하는 데 그쳤다. 긴 기간 한 작가가 집필을 도맡았던 사실 자체가 경이롭지만 누적된 피로감은 작품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한다. 고정 청취자층이 이탈했을 가능성 또한 높은 셈이다. 그나마 CBS 특유의 <연속어린이극>이 다시금 힘을 싣고 있다. 신세균의 『소년삼총사』에 이어 “위인동극” 『링컨』과 같은 각색물들이 전반기를 주도했지만, 후반기에는 창작 어린이극으로 새로움을 더한다. 이주훈의 『즐거운 여름방학』, 이원수의 『강물은 흐른다』, 신세균의 『복남이의 모험』이 연이어 방송되면서 어린이극의 재미를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개국 초기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이 탄탄한 작가층과 특유의 작품성으로 지지기반을 다졌던 양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시기에 유독 어린이문학 프로그램만 약세로 돌아섰는지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새로운 방송환경에 걸맞은 CBS의 편성전략 때문이었다면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것이 된다. 당시 청취자 취향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속속 신설하였던 것과 견줄 수 있다. 그래서 1957년 들어 경쟁력 있는 연속물만 회생 절차를 밟았을 수 있다. 하지만 1956년 들어 일거에 작가층이 이탈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시기 KBS의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에서 현저히 작가층이 두터워진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 박화목이 교양과장으로 역임한 가운데 작가층 이탈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연속동화>시간을 황광은이 도맡을 만큼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31) 1957년 방송된 <연속동화>는 다른 작가들이 활동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 12월 <연속소년소설>시간이 배정된 후 박은종의 『눈 내리는 밤』을 방송한 것이 고작일 정도다.

면 국영방송 KBS의 의도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확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까닭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시기 CBS의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향방을 가늠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표 1〉 1956년 12월 KBS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10~8:30	착하고 아름답게						
라디오 유치원							
9:00~9:15	동화극	노래동산	노래지도	동화	아기놀이	노래공부	동화
9:15~9:30				착하고 아름답게			
14:00~14:45	누가 누가 잘하나						
어 린 이 시 간							
18:00~18:05	어린이신문						
18:05~18:30	작은 음악회	노래모음 연속 어린이극	동화 음악교실	무엇 일까요	노래교실 연속 어린이극	노래앨범 라디오 도서실	동요극

〈표 2〉 1957년 5월 CBS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15~7:30			동요합창				
18:30~18:45		초등영어	초급영어	초등 영어회화	초급영어	초등 영어회화	초급영어
19:30~19:45	어린이 교회	연속동극	알아 맞히기	라디오 문답	연속동화	작은 음악회	노래잔치
19:45~19:55	유치원 시간		꼬마 예술가	울간 멜로	동요합창		

### 3. 경화되는 라디오방송과 어린이문학의 동요(動搖)

1958년에 접어들면서 양대 방송국은 또 다른 변화에 직면에 있었다. 방송시설의 확충과 기구개혁 등 방송여건의 강화에 주력했던 이전 시기와 달리 큰 변수로 부상한 것은 가파른 정국의 움직임이었다. 1958년 총선에서 1960년 정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시기 이승만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을 불사하며 권위주의적 면면을 노골화하였다. 협상선거법<sup>32)</sup> 통과로 1958년을 맞은 이승만 정권은 뒤이어 진보당사건을 조작하여 총선에서 배제시킨다. 특히 조봉암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고, 24과동으로 일컫는 국가보안법개정안이 통과된 이듬해 사형 확정 직후 집행된다.<sup>33)</sup> 그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극우반공체제 강화와 언론규제를 합리화하며 사회 각계를 얼어붙게 했다. 일례로 부정의 주체화로서 반공담론은 도의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동원과 풍속검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민윤리강령의 제정에 착수하면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다 구체화하였다.<sup>34)</sup> 이러한 국가주의적 정책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의 생성을 막기 위해 지배이데올로기의 실천을 윤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sup>35)</sup> 그것은 공보실의 강력한 관리·통제 아래 있던 양대 방송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KBS는 여당 일변도의 강연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는가 하면, 《반공독본》 등을

32) 개정선거법 협상은 자유당과 민주당이 주축이 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사전선거 운동 금지를 비롯한 광범위한 정치활동 규제조치, 기탁금제 도입, 선거공영제 등이다. 그것은 진보당을 비롯한 신규 정치세력의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서복경, 『제한적 경쟁의 제도화, 1958년 선거법체제』, 『선거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선거학회, 2013, 116-127쪽.

33)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 역사비평사, 1999.

34) 이동현, 『1950년대 국민화 담론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3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8, 185-213쪽.

35) 이유리, 『1950년대 ‘도의교육’의 형성과정과 성격』, 『한국사연구』 제144호, 한국사연구회, 2009, 266-267쪽.

편성하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데 조력한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1958년과 1959년 사이 KBS 어린이 프로그램들은 화려한 외양과 달리 잦은 개편 속에서 경화되어 갔다. 1957년 12월 최신 장비를 갖춘 남산연주소가 완공되면서 남산방송시대를 열었다. 《누가 누가 잘하나》와 《무엇일까요》 등 어린이 참여프로그램들이 남산연주소에서 공개방송이 이루어지면서 열기를 더해갔다. 하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부재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부침이 두드러졌다. 전후부터 어린이 프로그램의 종합편성과 운영은 한용희가 도맡아왔으나 1958년 7월 돌연 음악계로 옮기면서 혼란을 가져왔다.<sup>36)</sup> 이듬해 7월 한용희는 복귀하지만<sup>37)</sup> 그 과정은 적잖은데, 우선 1958년부터 구체적 면면을 살펴보자.

첫째, 1958년 들어 아침방송 어린이 프로그램이 확대·강화된다. 1958년 1월 개편으로 7시 30분 《착하고 아름답게》가 일요일에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을 더해 방송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좋은 애기 예쁜 애기》 시간이 마련된다. 《좋은 애기 예쁜 애기》는 대상만 유아로 낮췄을 뿐 《착하고 아름답게》의 포맷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라디오 유치원》의 세부 프로그램도 조정 국면을 맞는다. <노래동산>이 월요일에 더해 일요일과 금요일 주3회 방송되고 수요일에는 <대화>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대화>는 노래에 실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으로<sup>38)</sup> 주로 홍은순이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대폭 줄어든다. 일요일 방송되던 <동화극>이 자취를 감췄고, <동화>는 주2회에서 1회, 토요일만 방송된다. 《라디

36) 1958년 7월 이후 어린이 프로그램은 한동안 담당자가 부재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편성, 보도, 연출, 음악, 문예 등 각계로 분리되어 담당하다가 1958년 4월 편성계의 조부성이 담당한다.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92쪽.

37) 이 시기 한용희의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한국방송사』에서도 그의 거취는 “음악계로 옮긴 것인지 “방송국을 떠났던” 것인지 불확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외부의 강압에 의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8) 방송문화연구회 편, 앞의 책, 198쪽.

오유지원》 시간에서도 어린이문학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어린이시간》의 방송시간이 늘면서 정서 함양을 앞세운 교양 프로그램이 확대·신설된다. 1월 개편에서 《어린이시간》은 5분 연장된 35분으로, 뒤이은 5월 개편에서 다시 40분으로 연장되었다. 문체는 방송시간의 연장이 계몽과 교육 일변도의 교양 프로그램의 신설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화요일의 <선생님의 말씀>과 목요일의 <위대한 분의 발자취>이 대표적이다. <선생님의 말씀>은 유명 인사들이 출연하여 어린이들에게 수신(修身)과 도의(道義)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위대한 분의 발자취>는 세종대왕, 공자, 석가여래, 헬렌 켈러 등 동서양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계몽의 목적을 분명히 한 것으로 주로 어효선 지도로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9월 개편 이후 <훌륭한 분의 이야기>로 개명하여 월수금 주3회로 확대·재편된다. 여기에 선전성이 짙은 <지역방송국 어린이시간>이 화목도에 함께 편성된다. 결국 방송시간의 연장은 매일 두 개 이상의 ‘교양’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청취자 어린이들보다 국가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운영된 것이다. 그만큼 이승만 정권 말기의 경색된 분위기는 《어린이시간》 프로그램들에도 깊숙하게 영향을 미쳤던 셈이다.

셋째,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이 존재 위기에 내몰린다. 라디오매체에서 어린이문학은 급격히 자리를 잃어간다. 《어린이시간》에 주목해 본다면, 1957년 11월부터 <동화> 프로그램이 사라진 것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우선, 단편물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진다. 1958년 1월 <동화>가 재등장하지만 흔들림이 적잖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자주 대체되더니 4월 개편 이후 <어린이극>과 병행했고, 5월 이후에는 <어린이극>이 주종을 이룬다. 9월 개편 이후 이마저도 <음악교실>과 병행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만다. 그런 까닭에 이 시기 동화와 어린이소설은 황광은, 어린이극은 박일암, 강소천, 방기환, 조훈파, 이주훈, 이보라 정도만 확인될 뿐이다.

다음으로, 어린이문학의 연속물도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다. <연속어

린이극>이 첫머리에 놓인다. 1958년 3월 10일 방기환의 『흰 구름 푸른 구름』이 중영된 후 창작 연속어린이극은 오랫동안 찾아보기 힘들다. 그 자리를 대신한 <연속동화> 또한 유사한 행로를 거친다. 황광은의 『꿀꿀 형제』와 『개미왕국』이 뒤를 이었지만, 결국 4월 10일 폐지된다. 그 후 <연속낭독>이라는 이름 아래 각색 동화 『로빈슨 표류기』와 『집 없는 아이』가 연이어 방송되었고, 그마저도 9월 개편 이후 자취를 감춘다. 연속물들의 잇따른 폐지는 이 시기 『청실홍실』의 열풍 이후 많은 라디오 연속극이 창작·향유되고, 이에 편승하여 대중성 있는 장편소설이 연속 낭독되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유독 어린이 연속물들만, 그것도 이 시기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는지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의’의 이름으로 창작과 향유를 가로막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CBS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도 혹독한 결과를 낳는다. 1957년 말부터 《어린이시간》의 러닝타임이 20분으로 줄더니 청취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영어프로그램들도 줄지어 폐지된다. 그것은 방송국 내부의 동력이 급격하게 소진했다기보다 외부 압력에 의해 꺾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교를 표방한 CBS가 KBS를 뛰어넘는 경쟁력을 선보였던 데다 제2방송 실시 이후 공보실이 직접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다. 결국 1958년 CBS는 활력소가 되었던 ‘새로움’을 견어내는 형국을 드러낸다.

첫째, 프로그램들의 폐지와 신설이 교차되면서 퇴색 국면을 맞는다. 특히 25분 러닝타임을 주도했던 인기 프로그램들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퀴즈 프로그램 <알아맞히기>는 2년 3개월여 만인 3월 18일 마지막 방송으로 폐지되었으며,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화극 <나오기까지>도 7월 28일 폐지된다. 토요일 부동의 장기자랑 프로그램 <노래잔치>조차 4월 중순 뒤서리를 맞는다. 흔들림이 있었던 <작은 음악회>가 1957년 10월 개편에서 축소·운영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다. CBS 《어린이시

간》은 간판 프로그램들이 속속 내려앉으면서 부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KBS와 마찬가지로 계몽과 교육을 앞세운 교양 프로그램들이었다. <알아맞히기> 대신에 <어린이 음악교실>을,<sup>39)</sup> <나오기까지> 대신에 <사회생활교실>을,<sup>40)</sup> <노래잔치> 대신에 <우리학교자랑><sup>41)</sup>을 각각 신설하였던 것이다. 급조한 듯 프로그램들마다 명명과 요일, 시간 등의 드나들은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동요 알아맞히기>가 <알아맞히기>를 대신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결국 《어린이시간》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존의 무난한 프로그램들로 대체되고 만다.

둘째,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의 폐퇴가 심각해진다. 1957년 일신한 면면을 미미하게나마 보여주었던 어린이문학은 4월 개편 이후 창작보다는 각색, 드라마보다는 낭독을 전면에 내세우고 만다. 특히 어린이극이 크게 약화되는데, 『북남이의 모험』 종료 이후 특집극을 제외하면 두세 편 정도에 그칠 정도이다.<sup>42)</sup> 그 자리는 <연속동화>가 대신하는데, 창작물은 극히 드물었다. “세계명작동화”를 번역·각색한 작품들이 주2회, 그것도 다른 작품을 월요일과 화요일에 연달아 ‘낭독’한다. 간극이 없는 까닭에 청취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시기 활동한 작가들 또한 극히 적다. 창작 동화는 황광은과 임인수 등이 한두 편 내놓은 정도에 그치며, 대부분 홍은순의 각색물들이 방송되었다. 어린이극도

39) <어린이 음악교실>은 기존의 <음악교실>을 확대·편성한 것이었다. 하지만 10월 개편에서 <어린이 과학교실>로 바뀌었다가 11월 5일부터는 <어린이교실>로 재명명된다. 기존의 <라디오교실>이 아주 어렵게 <어린이교실>로 되돌려놓은 형국이었다.

40) <사회생활교실>은 <나오기까지>의 후신으로 구성작가는 여전히 김영호였다. 하지만 11월 개편에서 <사회생활공부>로 재명명하며 ‘교육’을 초점화한 프로그램임을 강조하였다.

41) <우리학교자랑>은 4월 30일 신설되어 10월 말까지 방송되었다. 6개월여 만에 신설과 폐지가 이루어진 셈이다.

42) 11월 개편 이후 어린이극이 두세 편 더 방송된 것이 포착되지만, 작품명을 확인하기 힘들다. <동화/동극> 포맷을 취했다고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세균, 한석동, 이소우 정도만 확인될 뿐이다. 그만큼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프로그램 편성에서부터 설 자리를 잃어간 셈이었다.

하지만 1959년에 접어들면서 양대 방송국은 사뭇 다른 행보를 드러내었다. KBS가 1958년 이전으로 복귀하는 상황이었다면, CBS는 침체국면이 가속화된다. 5월 개편 이후 KBS의 《어린이시간》은 러닝타임이나 세부 프로그램들이 많은 부분 이전 체제로 조정된다.

우선, 교양 함양을 앞세운 프로그램들이 적잖게 폐지된다. 지리멸렬한 교훈 일색의 프로그램들로 원성이 자자했던<sup>43)</sup> <훌륭한 분의 이야기>와 <선생님의 말씀>이 5월 개편으로 자취를 감춘다. 파행적으로 대담을 진행했던 <어린이도서실><sup>44)</sup> 또한 폐지되었고, 대신 <라디오 도서실>이 8월부터 복귀한다. 음악 연주를 곁들인 이야기 형식인 <음악교실>만 1958년에 이어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선전성 프로그램은 명암을 달리하였지만 결국 폐지된다. 지역방송망 구축에 힘입은 <지역방송국 어린이시간>은 작품의 완성도와 재미 논란 속에서 주3회에서 1회로 분량을 줄인다. 이에 반해 <이주일의 라디오동요>는 주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건전성을 앞세운 국가적 차원의 동요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지역방송국 어린이시간>은 8월, <이주일의 동요>는 9월에 각각 폐지된다. 물론 <이주일의 동요>는 유사 포맷을 지닌 <노래는 즐겁다>를 통해 유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 참여프로그램도 급락을 달리한다. 퀴즈 프로그램 <피돌이문답>이 9월 19일 마지막 방송으로 《어린이시간》에서 사라진다. <피돌이문답>은 1957년 신설 후 <무엇일까요>에 견줄 만큼 인기를

43) “『선생님의 말씀』이라는 푸로에서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수신 강화 같은 따분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때까지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리 신통치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듣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 푸로”라는 혹평이 있을 만큼 청취자들로부터 지적이 적잖았다. 오소윤, 『천대받는 주부와 어린이』, 『방송』 제3권 10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8.10, 48쪽.

44) 오소윤, 위의 글, 49쪽.

얻었지만, 차별화 전략의 부재 속에 “실속 없이 수만 채운” 프로그램으로 전략하더니 결국 폐지되고 만다. 그리고 <내가 지은 글>은 여러 학교를 돌며 어린이들의 글 솜씨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5월에 신설되었다가 8월에 폐지된다. 노래솜씨를 자랑하는 <노래선물>만 1958년 9월 신설 이후 여전히 자리매김한다. 여전히 부동의 자리를 지킨 것은 <무엇일까요>와 <누가 누가 잘하나>뿐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미약하나마 부활하고 있다. 5월 중반 목요일의 <동화>와 금요일의 <연속어린이극>이 첫 선을 보인다. 5월 19일 첫 방송된 <연속어린이극>은 『제비 오는 마을』이며, 이전과 달리 주1회 방송되었다. 하지만 8월부터 월요일로 자리를 옮겨 <어린이극>이 방송되었고, <연속어린이극> 시간에는 <동시낭독>이 마련되었다가 9월부터 <이달에 뽑힌 글>이 편성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토요일 <어린이잔치> 시간을 통해 기존의 <동요극> 혹은 <노래극>이 방송되었다. 이렇듯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5월 이후 일부 복귀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문학 프로그램들이 이전만큼 활성화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리얼리즘에 투철(透徹)했다고도 볼 수 없는 소란스러운 사실(寫實)로만 메꾸어진 <어린이극>, 또는 노래와 조금도 융합이 되지 아니한 단편적(斷片的)인 <노래극> 따위로 우선 보기만은 다채롭게 편성이 되어 있을 따름”<sup>45)</sup>이라든가, “방송을 통한 일부 아동문학가들이 원고를 공급한 (...) 그 내용의 공소함과 제작정신의 극도의 빈곤은 실로 불쾌감을 줄 정도 (...) 자기 평론수준에서 훨씬 떨어진 작품”<sup>46)</sup>이라는 평가들이 공공연하게 나돌 만큼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의 재개 이후 작품의 질적 수준이나 방송 제작 수준이 크게 떨어진 것이었다. 물론 9월 중반 <어린이연속극>이 주2회로 재편되면서 상황은 호전되었을 것이라 간주된다.

45) 이영희, 『어린이시간과 어린이의 정서생활-어린이에게 꿈을 주는 데 인색하지 마라』, 『방송』 1959년 여름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9.6.1., 17쪽.

46) 김요섭, 『방송에 있어서의 새로운 아동문학형식』, 위의 책, 20쪽.

한용희가 어린이 프로그램의 종합편성을 주도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귀국한 김영수가 쓰고 한용희가 연출을 담당한 『똥보, 울보, 떡보』가 본격적으로 방송되었고, 동화와 어린이소설 또한 장수철, 황광은, 이영희 등이 참여하는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린이문학가들마저 “여기(餘技)로 알바이트 하듯이 써갈긴 원고”<sup>47)</sup>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것은 당시 방송환경에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주목할 점은 당시 어린이 프로그램의 변화가 청취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의한 것으로 홍보되었다는 점이다. 1959년 여름, 계간 『방송』은 이례적으로 <어린이와 라디오>를 특집으로 마련하였다. 1958년 이래 《어린이시간》의 프로그램들을 비판적으로 다루었을 뿐 아니라 청취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설문조사도 일부 이루어졌다. 그것은 5월 개편 이후 프로그램의 전면 조정이 전문가와 청취자들의 공론에 거친, 국영방송의 민주주의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선전 효과를 낳았다. 특히 설문조사는 청취자들이 새롭고 재미있는 들을 거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에 향해 있음을 환기시킨다.<sup>48)</sup>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이 재배치된 이유를 청취자들의 요구에서 찾는 셈인데, 여기에 국가주의 정책의 실패는 살며시 지워둔다. 어린이 프로그램 담당자로 복귀한 한용희의 역할 또한 부인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발전적 면모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달라진 매체환경에서 청취자의 역할이 또 다른 발판으로 부상하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CBS의 《어린이시간》은 1959년에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 가장 큰 변화는 9월 개편 이후 《어린이시간》이 러닝타임 20분으로 기존보다 5분 줄어든 것이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킬 수밖에

47) 김요섭, 위의 글, 20쪽.

48) 『설문: 어린이시간에 바란다』, 『방송』 1959년 여름,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9. 6.1., 28-31쪽.

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셈인데, 어린이문학 프로그램 또한 재도약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화요일 <연속동화> 시간은 “세계명작동화”를 번역하여 낭독하는 작품 일색이다. 『플란다스의 개』, 『인형의 집』, 『백조왕자』, 『눈의 여왕』,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이 방송되었으며, 이영희 등이 번역자로 나선 면면이 일부 드러날 뿐이다. 다만 창작 어린이극의 비중만 작년보다 높아졌다. 이원수의 설날특집동극 『나이』나 한석동의 3·1절 특집동극 『애국소녀』같은 특집 동극뿐 아니라 월요일에 장수철의 『봄을 기다리는 언덕』, 김영일의 『봄이 오네』와 『은방울꽃』 등이 방송되었다. 여기에 김영일의 『봄이 오네』처럼 기존의 방송작품을 재방송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일면을 드러내는 셈인데, 그것은 CBS 《어린이시간》을 통해 라디오매체에 걸맞은 창작과 향유가 좀처럼 이루어지기 힘들었음을 반증한다.

〈표 3〉 1958년 9월 KBS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라디오 유치원							
9:00~9:15	노래동산	노래 동산	그림 알아 맞히기	노래공부	이야기 주머니	노래공부	동화/대화
11:30~11:45	노래는 즐거워	학교방송 (1학년)	학교방송 (2학년)	학교방송 (3학년)	학교방송 (4학년)	학교방송 (5학년)	학교방송 (6학년)
어 린 이 시 간							
18:00~18:05	어린이신문						
18:05~18:40	이주일의 라디오동요	홍룡한분의 이야기	지역방송국 어린이시간	홍룡한분의 이야기	지역방송국 어린이시간	홍룡한분의 이야기	지역방송국 어린이시간
	누가 누가 잘하나	노래앨범/ 이달의 뽀뽀 글	자라나는 새싹	선생님의 말씀	무엇 일까요	노래 선물	피들이문답
	어린이극/ 음악교실	음악 교실	노래는 즐겁다	어린이 도서실			

〈표 4〉 1958년 12월 CBS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40~5:50	어린이교회		연속 동화	어린이 교실	음악 교실	작은 음악회	노래 잔치
5:50~6:00	꼬마 예술가	동화/동극	동요 알아 맞히기				

#### 4. 4·19혁명과 어린이문학의 거듭되는 부진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학생들이 대거 나선 거리의 정치였다.<sup>49)</sup> 비합법적 수단을 불사했던 3·15 정부통령 선거는 2·28 대구 학생시위를 출발점으로 시위들을 양산했고, 그것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불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때 정의 개념은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호출되었고,<sup>50)</sup> 이에 근간한 시위는 “문맹상태에 있는 민중을 깨우치는 데는 무슨 논설이나 연설보다도 시각에 강하게 호소할 수 있는”<sup>51)</sup> 방법으로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4·19혁명기에 대처하는 양대 방송국의 자세는 사뭇 달랐다. 보도 분야에 취약했던 CBS는 일련의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보도하여 청취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반해 이승만 정권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전락해 온 KBS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발표된 4월 26일야에 ‘KBS 아나운서 중립화선언’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고 방송의

49) 김미란, 『‘청년 세대’의 4월 혁명과 저항 의례의 문화정치학』, 『사이먼SAI』 제9호, 국제한국문화학회, 2010, 14쪽.

50) 4월 혁명기 1950년대 국가주도의 도의 개념은 약화되는 대신 정의 개념이 부상하였다. 이때 정의는 정의감 같은 도덕적 행동을 촉구하는 용어로 쓰이는 동시에 정의/불의의 대립쌍을 통해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를 가르는 기준을 작동하였다. 김미란, 『순수한 청년들의 ‘평화’ 시위와 오염된 정치 공간의 정화』, 『상허학보』 제31호, 상허학회, 2011, 196-197쪽.

51) 김성식, 『학생과 자유민권운동』, 『사상계』 제83호, 사상계사, 1960.6, 66쪽.

중립화와 민영화를 주창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방송제도의 민영화 논의를 촉발하면서 5월 31일 ‘방송관리법안’이 제출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국영방송제도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수렴하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았고, 혁명 이후 청취대중의 불신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어린이 프로그램들 또한 그러한 행보 속에 놓여 있었다.

4·19혁명기 KBS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외형상 흔들림이 거의 없었다. 《어린이시간》만 하더라도 특별 편성에 동원된 것 외에는 이전 시기와 다를 바 없었다. 흥미롭게도 변화의 조짐은 어린이문학 프로그램, 특히 <연속어린이극>에서 발견된다. 4·19혁명기 당시 <연속어린이극>은 이원수의 『불어라 봄바람』이 방송 중이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3월 17일 돌연 방송이 중단된다. 선거 이전 보낸 원고 분량까지만 방송되었던 것이다. 그 여파로 <연속어린이극>은 <선생님의 말씀>, <노래앨범> 등으로 대체되었고, 7월 이후에도 <걸작동화>와 <세계명작동화>가 자리매김한다.

이에 반해 <동화>는 4·19혁명 이후 KBS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4·19혁명 직후부터 6월까지 <동화>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황광은, 강소천, 장수철, 박홍근, 김영일, 박경중, 이영희, 이원수 등 쟁쟁한 어린이문학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축하듯 <동화>시간을 가꾸어나갔다. 그러나 7월 이후 <동화>는 <낭독><sup>52)</sup>에 이어 <선생님의 말씀>으로 대체된다. <낭독>은 『민주주의의 영웅-정의의 화살』이라는 글을 연속 낭독하는 형식이었고, <선생님의 말씀>은 기존의 수신 강화형 교훈보다 어린이 상식을 이야기 형식으로 방송하였다. 그것은 4·19혁명의 성공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교육하고 계몽하는 시간에 다름 아니었다. 그럼에도 한동안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국내 작가의 창작물들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KBS가 어린이 프로그램의 개편에 나선 것은 11월에 와서이다. 서머

52) <낭독>은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방송되었다.

타임에도 흔들리지 않던 《어린이시간》을 5시 30분으로 앞당기며 일부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해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월요일의 <우리학교자랑>과 목요일의 <우리들 차지>이다. <우리학교자랑>은 전국적인 방송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과 지역 어린이의 근황을 방송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녹음구성이나 방송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자신의 학교를 소개하고 자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53)</sup> 그럼에도 <우리학교자랑>은 청취자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그것은 1957년 CBS가 《학생시간》을 통해 선보인 바 있으며, 1958년 대한방송은 이를 재매개하여 대학교를 대상으로 《우리학교자랑》을 방송하였다. <우리학교자랑>은 이들 프로그램을 재매개하면서 초등학교를 특화해 방송하였던 것이다. 신설된 <우리들 차지> 또한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들 차지>은 <자라나는 새싹>을 재매개하여 어린이들의 장기를 자랑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러한 신설 프로그램들은 재매개방식의 한계를 내장하고 있지만, 친숙한 포맷을 활용해 발 빠르게 《어린이시간》을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재출발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쇄신에 힘을 실었다. <연속어린이극>이 재개된 것은 11월 22일부터이며, 작품은 최요안의 『달 뜨는 저녁』이었다. <연속어린이극>은 “화요일부터 매일 계속 방송”<sup>54)</sup>이라 홍보되었던 것과 달리 주3회, 즉 화요일, 목요일

53) 방송문화연구회 편, 앞의 책, 195-196쪽. <우리학교자랑>은 1961년 <우리고장>으로 개편되어 범위를 확대시켰다.

54) 『새 연속극 『달뜨는 저녁』 화요일부터 매일 계속 방송』, 『경향신문』, 1960.11.20., 4면. 『달뜨는 저녁』은 “공부를 못해 미움을 받던 어린이가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로 옮겨가는 모양”을 내용으로 삼았다. 당시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겪은 현실과 꿈을 재현하였던 셈이다. 당시 연속극의 주제를 작가인 최요안이 작사하고 연출가인 한용희가 곡을 각각 담당했고, 그것을 “배위 부르도록 하자”며 신문매체를 통해 대대적 홍보하였던 점은 이채롭다.

일, 토요일에 방송되었다. <동화>는 매주 목요일에 방송되었으며, '명작'을 앞세운 각색물 위주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었다. 참여 프로그램에 비해 힘겨운 모습이었지만 점진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한편 CBS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4·19혁명기 사회적 혼란에 영향을 받았지만, KBS에 비해 서둘러 일신한 면면을 드러내었다.

우선, 《어린이시간》은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전면 전환한다. 러닝타임 20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1959년 후반 주3일 두 개의 프로그램을 10분씩 운영했다면, 5월 개편 이후 토요일을 제외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방식을 취한다. 토요일은 기존의 <노래잔치>를 폐지하는 대신, 유사한 어린이 참여프로그램들인 <우리작품낭독>과 <꼬마예술가>를 나누어 편성한다. 그리고 10월 개편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5분간 <어린이뉴스>를 신설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15분간 집중·운영하는 것이었다. <어린이뉴스>는 KBS의 <어린이신문>를 재매개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신설은 4·19혁명기 CBS의 보도정신을 《어린이시간》에 반영하려 했던 의도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한다.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의 비중 자체가 주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다. 개편의 움직임 속에서도 기존의 <연속동화>는 화요일에 편성·방송되었다. 하지만 '세계명작동화'를 내세운 번역물이 대부분이며, 5월 말부터는 개국 초기에 방송되었던 '성경동화'가 재등장하였다. 그것은 혼란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담당 작가와 작품을 구하기 더욱 어려웠던 까닭으로 여겨진다. <연속동극>이 잠시 편성되었다가 사라진 것도 그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10월 개편 이후에도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하나만 운영된다. 이제는 <연속동화>조차 폐지되고 월요일에 <동화>와 <동극>이 뒤섞여 방송되는 데 그쳤다. 신문·잡지자료 조사 결과, 당시 활동한 작가와 작품의 윤곽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린이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동화>를 표기해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 CBS의 어린이 프로그램, 특히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이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더욱 가늠하기 힘들다.

〈표 5〉 1960년 11월 KBS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10~8:20	착하고 아름답게 라디오 유치원						
9:00~9:15	노래동산	노래동산	그림 알아맞히기	노래동산	이야기 주머니	노래공부	대화
어 린 이 시 간							
18:30~18:35	어린이신문						
18:35~19:00	누가 누가 잘하나	노래모음	노래선물	무엇 일까요	우리들 차지	동화	어린이 잔치
		우리학교 자랑	연속 어린이극		연속 어린이극	라디오 교실	

〈표 6〉 1960년 12월 CBS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00~6:05	어린이 교회	어린이 뉴스					
6:05~6:20		동화/동극	착한아이	어린이 교실	동요합창	작은 음악회	꼬마 예술가

## 5.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 불안한 자리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에 이르는 시기 라디오방송은 한국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약의 일로에 있었다. 전후복구의 성과로 방송시설이 확충되면서 방송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여러 방송국의 개국으로 다양성이 확보되어갔다. 국영방송제도의 한국적 지배구조가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1956년과 1957년 사이 양대 방송국이 외적 성장을 피하고 경쟁적 구도를 형성하는 데 조력하였다. 수신기

보급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서울지역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빠르게 앞서 나갔다. 뉴스와 음악 프로그램 중심의 라디오방송은 이중방송과 종일방송제도로 전환되는 가운데 새로운 편성전략을 꾀하였다.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형화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라디오연속극이 인기를 끌면서 변화를 주도해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라디오방송을 둘러싼 일화들이 대중잡지들의 지면을 채워나갔고, 특히 성우들이 영화 배우 못지않게 스타로 부상하였다. 이즈음 도시 곳곳에 ‘라디오방’이 등장하면서 다방과 차별화되는 라디오방송 문화가 형성되어갔다.

하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의 면면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물론 양대 방송국 내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변화가 적잖다. KBS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방송체제의 전환에도 안정된 방송시간대를 확보한다. 유아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일부 프로그램을 신설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돋보인다. 이에 비해 CBS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시간대 조정과 드나들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참여 프로그램과 교양 프로그램의 신설 및 적절한 안배는 주목할 만했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의 약진은 참여 프로그램들이 주도했다. KBS의 <누가 누가 잘하나>와 <무엇일까요>는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학부모들에 의한 경쟁적 참여를 부추겼다. CBS 또한 <작은 음악회>를 확대하고 퀴즈 프로그램 <알아맞추기>를 신설하여 KBS와 경쟁적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양대 방송국의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명암을 달리했다. KBS의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안정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였던 반면 CBS는 비중이 약화되었다. 기성 작가들에 신진 작가들이 가세해 단편물과 연속물의 고른 성장을 보였던 KBS와 달리 CBS는 특유의 대화극과 각색물이 명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특정 작가에게 집중되는 기현상을 드러냈다. 편성전략의 변화인지 공보실의 압력인지 불분명하지만 CBS의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약세로 돌아섰다. 탄탄한 작가층을

확보한 KBS의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도 한계를 내장하고 있었다. 라디오매체에 걸맞은 작품 운영에서 비켜난 점, 청취자들의 선호도가 약화된 점, 국가주의를 앞세운 프로그램이 등장한 점 등이 그것이다. 결국 양대 방송국의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달라진 방송환경과 청취문화 속에서 ‘낯선’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했던 셈이었다.

1958년에 들어 이승만 정권 말기의 가파른 정국은 국영방송제도에 있던 양대 방송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은 사회·교양 분야에 속했던 까닭에 특화된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주의 정책을 선전하고 계몽하는 장으로 변질되어갔다. 국영방송 KBS는 어린이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한용희가 내몰리는 상황에서 권위주의적인 교양 프로그램의 신설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CBS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치달았다. 어린이시간의 단축 속에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폐지되고, 무난한 프로그램들조차 ‘~교실’로 제명을 달리했다. 이러한 가운데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제 자리를 잃어갔다. KBS는 <동화>의 폐지, <어린이극>의 변칙적 운영, 연속 창작물의 폐지 등이 잇따랐다. 약세로 돌아섰던 CBS는 크게 패퇴하여 대부분 각색물 일색이었다. 그럼에도 두 방송국의 향방은 엇갈렸다. 1959년 봄 개편이후 KBS는 청취자들의 요구를 앞세워 이전의 포맷으로 전환 움직임을 보였지만, CBS는 좀처럼 변화를 꾀하지 못했던 것이다. 달라진 변화의 향방 속에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친숙한’ 새로움조차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다.

4·19혁명기 두 방송국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거리의 정치를 전혀 다르게 담아내었다. 보도 분야에 취약했던 CBS는 시사각각 달라지는 시위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도했던 반면 KBS는 시위 자체를 권고하는 방송을 내보낼 뿐이었다. 혁명의 성공 분위기가 무르익고서야 아나운서들의 중립화선언과 방송제도의 민영화 논의 등 자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청취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4·19혁명의 여진이

여전한 가운데 당대 분위기를 5월 개편에 담아냈던 CBS와 달리 KBS는 가을 개편 후에야 반영할 수 있었다. KBS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아침방송에 《착하고 아름답게》를 전면화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분위기 쇄신에 힘썼다. 그리고 CBS는 4·19정신을 계승한 <어린이뉴스>를 신설하고 《어린이시간》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였다. 그 과정에서 성공적인 참여 프로그램이 안착했다. 방송국마다 참여 프로그램의 강화가 두드러진 가운데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의 명암은 달랐다. KBS는 <연속 어린이극>의 부활과 <동화>의 안정화 속에서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CBS는 <동화/동극> 한 번에 그칠 만큼 폐색이 깊었다.

1950년대 후반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방송 환경의 개선, 국영방송제도의 통제 그리고 4·19혁명의 열망이라는 파고를 넘나들면서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은 제자리를 유지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창작보다 각색이, 극화보다는 낭독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양산되었다.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이 라디오매체만의 소통지향성을 ‘낮선’ 새로움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친숙한’ 활자매체의 낭독시간에 머물다 사라질 위험을 표면화한 셈이다. 설문조사들은 청취자들이 어린이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았음을 보여주지만, 정작 그러한 기대를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 자체가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당대 상황에 꺾꽂히게 대처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이 부족했다. 단행본 출간으로 이어졌던 몇몇 작품들조차 라디오방송의 흔적은 지워진 채다. 외부의 흔들림에 쉽게 동요될 만큼 불안한 자리에 있었던 셈이었다.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 연구는 여전히 요원하다. 문학사료의 망실이 가로막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글을 더해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방식과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작품의 면면과 변용의 자리들은 후일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강현두·김만룡 공편, 『한국방송론』, 나남, 1989.
- 공보실 방송관리국 편, 『방송』 제1호~제34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6. 9~1959년 겨울.
- 국군방송40년사 편찬위원회 편, 『국군방송 40년사』, 국군홍보관리소, 1995.
- 김미란, 「'청년 세대'의 4월 혁명과 저항 의례의 문화정치학」, 『사이먼 SAI』 제9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0, 11-43쪽.
- 김미란, 「'순수'한 청년들의 '평화' 시위와 오염된 정치 공간의 정화」, 『상허학보』 제31호, 상허학회, 2011, 173-209쪽.
- 김영희,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노정팔, 『한국방송과 50년』, 나남, 1995.
- 방송문화연구실, 「청취자의 소리-제1차 방송여론조사결과」, 『방송』 제15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7.11, 46쪽.
- 사사편찬위원회 편, 『CBS50년사』, CBS, 2004.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 역사비평사, 1999.
- 송영호, 「방송 13년 이면사」, 『방송』 제28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8. 12, 74쪽.
- 윤태진·김정환·조지훈 공편, 『한국 라디오 드라마사』, 한국성우협회·한국방송실연자협회, 2015.
- 이내수, 『이야기 방송사』, 씨앗을뿌리는사람, 2001.
- 이동현, 「1950년대 국민화 담론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3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8, 185-213쪽.
- 이유리, 「1950년대 '도의교육'의 형성과정과 성격」, 『한국사연구』 제144호, 한국사연구회, 2009, 239-283쪽.
-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 정진석 편, 『한국방송관계기사모음』, 재단법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92.
- 최미진, 『한국 라디오서사의 갈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72-174쪽.
- 최미진, 『1950년대 후반 라디오연속극의 영화화 경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119-141쪽.
- 최미진, 『라디오방송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린이문학의 자리(1)』, 『대중서사연구』 제20권 제1호, 2014, 143-173쪽.
- 최창봉·강현두, 『우리방송 100년』, 현암사, 2000.
- 최현철·한진만,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적 연구』, 한울, 2004.
- 한국TV방송50년위원회 편, 『한국의 방송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한국방송7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방송사70년』, 한국방송협회·한국방송공사, 1997.
-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 한국방송작가협회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방송작가협회 50년』, 한국방송작가협회, 2000.
- 한용희, 『한국동요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8, 118쪽.
- 한운사, 『구름의 역사』, 민음사, 1996.
- 한진만, 『방송 편성 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경향신문』, 1946.10.6.~1959.4.29.
- 『동아일보』, 1945.12.1.~1959.12.31.
- 『서울신문』, 1945.11.23.~1959.12.31.
- 『조선일보』, 1945.11.23.~1959.12.31.
- 『한국일보』, 1954.6.9.~1959.12.31.

<Abstract>

## The position of Children's radio program and Children's Literature(2)

Choi, Mi-J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foundations of children's literature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way children's radio program from the mid-1950s to 1960. In this period, Children's programs of two major station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KBS has switched the Radio broadcasting system by improving the environment from 1956 until mid-1957. In the process, steady broadcast time has been secured and the children's program was developed. As part of this adjustment program toddler program was revived, Radio Children's literature has continued to build a stable foundation. We continue to build a stable base. Writers were great, but there was no work suitable for operating the radio medium. Therefore, the level of preference was low. But in 1958, KBS has sought to exp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orning broadcast children's programs and «Children of time». Because of this, the children's literature program was about to be abolished. Inflexibility of contemporary political position and reinforcement of morality education gave a direct impact on children's programs. After the reorganization in spring 1959, KBS was to revert to the previous format regardless of criticism from various fields and it tried to change the movement through April 19 revolutions. In this

progression, Children's Literature program was created, but still difficult to ensure the quality of its programs.

On the other hand, in the extension process of the broadcast two times, CBS made adjustment and change of the program. Nevertheless, the successful operation, the proper arrangement of the new program and participation and education programs in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 were notable. But this time, children's literature of radio broadcasts was even falling. CBS is famous for its unique dialogic play and adaptation work, but it revealed the limits to be concentrated to a particular artist. At the beginning of 1958 within a rigid society, CBS went through tough times. By shortening of the time for children's program, some competitive programs were abolished and some programs had to change the title to "- class". Children's literature program was also abolished therefore; most of programs were just adaptation works. Such a situation lasted until April 19 revolutions. At the time of fall reorganization, CBS has established the <Children's News> inheriting the spirit of April 19 revolutions and the concentrated on «Children's time» program. In the process, some of the program has been successfully aired, the children's literature program was aired <Children's story/ Children's play > just once. But competitive radio broadcasts era was brought in the 1960s; it was hard to b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of the children's literature in radio program.

Key Words : Radio broadcasting, Children's program, Children's literature, Radio broadcasts, KBS, CBS, Participation programs, Education programs, Children's story,

Children's play, Consecutive children's play, Creative work, Adaptation work, Nationalism.

- 논문접수 : 2016년 7월 7일
- 심사완료 : 2016년 8월 2일
- 게재 확정 : 2016년 8월 16일